

화순군, 든든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및 취약계층 보장 결정 심의

“부양 기피로 실질적 생계 곤란 세대에 보탬 되길 기대”

화순군은 지난 2월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개최하여 2024년 갑진년 새해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최된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4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2024년 기초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연간 통합조사계획 타당성 ▷ 기초생활수급 신청 조사 중인 11세대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2024년 자활 지원계획 수립 타당성 ▷2024년 자활근로 연장 참여 대상

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승인 의결하였다.

이날 위원장인 화순군수(구복규)는 인사말에서 “화순군 기초 생활 수급자는 3,700여 명으로 인구 대비 6%가 맞춤형 급여를 받고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부양 거부 기피로 인한 실질적 생계 곤란 세대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2024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의 선점 기준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주변의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모두

가 행복한 화순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순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군수를 위원장으로 부군수 외 4명의 외부 위촉직 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의 연간 통합 조사계획 및 자활 지원계획의 타당성, 실생활이 어려우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보호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3년에는 40세대 78명을 보호 결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화순=박순철기자



“10만원 사면 2만원 댐”...나주시, 원도심 상점가 페이백 쏜다

13일까지 이벤트...원도심 매장 141곳서 구매 금액 20% 지역화폐로 환급

“나주 원도심 금빛상점가에서 10만원어치 구매하면 2만원 돌려줍니다.”

나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원도심 상점가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의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페이백(Payback·보상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3일까지 9일간 나주 원도심 중앙로 금빛상점가에 위치한 매장 141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출 금액의 20%를 나주사랑 지역화폐로 돌려줌으로써 재구매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벤트 기간 페이백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다.

5만원은 1만원, 10만원은 2만원, 20만원은 4만원, 50만원은 10만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1억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상품권 발급은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중앙로 파리바게트 앞 사무실(나주시 중앙로 38-1) 또는 구 오약국(나주 156-1)에 마련한 교환소를 찾아가면 된다. 평일과 주말, 명절 연휴 동일하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나주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이벤트가 고급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소비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서로가 상생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착한 소비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강화한다

24시간 상해 보장 등 8개 항목 추가

보장 항목이 대폭 확대된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장성군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장성군은 군민안전보험을 처음 시행한 2019년 이후 매년 보장 항목을 늘려 왔다. 올해는 기존 17개 보장 항목에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 △자연재해 진단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응급실 내원 진료비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무려 8개 항목을 추가했다.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새로 포함된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의 경우 집안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나 전동 휠체어 사고에도 3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가족이 엔에이치(NH)손해보험사에 직접 연락(1644-9666)해 신청한다. 세부 보장 항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군민안전보험’을 입력하거나 장성군청 재난안전과(061-390-7018),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보장성을 크게 강화한 2024년 군민안전보험이 장성군민의 일상을 한층 든든하게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핫(HOT) 플레이스 담양에 고향사랑 기부하세요”



농협담양군지부(지부장 이기복)는 2월 3일 담양메타프로방스에서 핫팩 1,000세트를 방문객에게 나누며 담양군 고향사랑기부

홍 행사를 진행하였다.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첫 해인 2023년 12,174명의 기부자가 동참하여 22억

4천만원 기부금을 모아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위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대숲맑은 담양쌀” 등 5억의 답례품을 기부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번 고향사랑기부 홍보 행사는 농협담양군지부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핫한 담양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기복 담양군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의 고향은 내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역소멸위기에 시골 및 농촌마을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가 『내가 가보고 싶은 농촌, 다시 보고 싶은 시골』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오늘부터 우리 밀 월동 후 재배관리 현장 기술지원 추진나서

구례군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관내 우리 밀 주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생육 재배기 이후 비배 관리를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육 재배기는 월동 후 기온상승에 따라 맥류의 새로운 잎과 뿌리가 증가하는 시기로 구례군 맥류 생육재배기는 2월 7일 경이다.

생육 재배기 후 10일 이내에 웃거름을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적기에 사용된 웃거름은 수당 립수를 증가시키고 생육 후기까지 비효 지

속 기간을 연장하여 등숙율을 높여준다.

웃거름 적정량은 밀·겉보리·쌀보리의 경우 10a당 요소 10kg이며, 사질토양 또는 습해 등으로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박근규 소장은 “맥류 웃거름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원과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널 포스코A&C